

#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초읽기

옛 광주교도소에서 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37년 만에 이뤄지면서 범위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옛 광주교도소의 암매장 추정 장소에 대한 발굴 조사 일정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발굴 장소는 5·18 당시 교도소에서 농장으로 사용했던 땅이다. 그 중 현재 풀숲으로 덮여 있는 곳이 가장 먼저 발굴 작업을 벌일 장소다.

## 5·18재단, 오늘 일정 공개...범위·방법 '관심' 37년 만에 처음 조사...유해 발굴시 검찰이 지휘

재단은 앞서 현장조사에서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가 '중장비로 땅을 파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지목한 곳과 3공수여단 부대원이 남긴 약도에 표시된 암매장 추정 장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곳을 유해 암매장 장소로 주목하고 있다.

재단은 앞서 현장조사에서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가 '중장비로 땅을 파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지목한 곳과 3공수여단 부대원이 남긴 약도에 표시된 암매장 추정 장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곳을 유해 암매장 장소로 주목하고 있다.

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이른바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7명(보안대 자료 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16~17명의 신원과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최소 52명이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단은 광주교도소 외에 7공수여단이 주둔했던 제2수원지 상류쪽과 화순 너릿재 인근 등도 올해 내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추수하는 들녘 22일 오후 인천 계양구 상아동 일대 들녘에서 농부가 콤바인으로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

##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탈북자 구속...오늘 보강 조사

정신병원에서 보호관찰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탈북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탈북자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할 방침이다.

유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3시36분께 나누시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서 휴대용 전자 부착장치를 버리고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법무부 조사 결과 유씨는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도주했지만,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례 탈북한 적 있는 유씨는 병원에서 도주 뒤 북한으로 가기 위해

인전 월미도 해안가를 사진 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구명조끼·오리발·물안경 등을 구입, 거주했던 인천지역 옥담방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도주 경로에 대해서는 "야산으로 도주한 다음 날인 8월2일 오전 하산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부천·안산 등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공원에서 만난 노숙자 진모(58)씨의 신분증을 빌려 신분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인천의 모 지역 옥담방을 월세 계약할 당시와 공사장 일지리를 구할 때 진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지난달 개봉한 휴대전화로 진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도주하기 보름 전인 지난 7월15일경 병원 ATM 기기에서 100

만원을 인출했지만 "도주를 위한 자금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진씨의 명의로 개봉한 휴대전화로 서해안 지도 등 임박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피해망상 증세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훼손한 도구와 방법, 월미도 해안가 사진 담사 시기, 신분을 도용한 진씨에게 접근한 동기·배경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자신을 불법으로 감금해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앵커를 데려오면 입을 열겠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북미편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3일 유씨를 1년간 전담했던 보호관찰소 직원을 투입, 도주 뒤 구체적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 아프간서 무차별 연쇄테러로 최소 11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각지에서 20~22일 사흘간 무차별 연쇄 테러공격이 자행돼 적어도 1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당국이 22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아프간 북부 타카르 주에서 이날 폭탄테러가 발생해 진 정부 지방 지도자를 포함해 최소한 2명이 숨지고 민간인 8명이 다쳤다.

입들 칼릴 아세르 타카르 주 경찰 대변인은 폭탄이 이슈카미슈 지구에 있는 호텔에서 터져 지하도 무장세력 지휘관 출신인 나주르 미르 등이 사망했다.

탈레반 반군과 수니파 과격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아프간 정부나 미군 주둔 연합군에 협력하는 민간인, 성직자, 지역 유력자 등을 겨냥해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공식 통계로는 지난해 아프간 전역에서 이런 테러로 인해 65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60명 넘게 다쳤다.

앞서 수도 카불 서부에서는 21일 오후 군 훈련소 버스를 노린 자폭테러가 일어나 훈련병 등 15명이 희생됐다. 부상자도 4명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훈련소를 나온 버스에 자폭범이 접근해 소지한 폭탄을 터트렸다고 보도했다.

20일 오후에는 카불에 있는 시아파 사원에 대한 IS 지부의 폭탄공격으로 60명이 숨졌고 중부 고르 주에서도 수니파 사원에서 폭발물이 폭발해 최소 33명이 사망했다.

## 美 뉴저지서 로맹작 나폴레옹 흉상 발견

미국 뉴저지주 매디슨시 청사 격인 하틀리 닷지 기념관에서 가치가 약 40만 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오귀스트 로맹의 작품이 발견돼 일만에 공개됐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념관 내 예술품들을 관리하는 '하틀리 닷지 재단'은 지난 2014년 회의실 구석에 방치돼있던 상자에서 로맹이 조각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리석 흉상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지난 주 공개했다.

니콜라스 플랫 재단 대변인은 "이 흉상은 로맹이 조각한 유일한 정치·군사적 인물"이라며 "적어도 4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나폴레옹 흉상은 1904년 기업가 토머스 포천 라이언의 의뢰를 받아 로맹이 만든 작품이다. 이후 작품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몇년을 보내다 1933년 경매로 에셀 록펠러에게 넘겨졌다. 하틀리 닷지 기념관으로 온 것은 지난 1942년이다.

하지만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아무도 이 작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재단이 지난 2014년 채용한 임시 기록관리담당자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흉상을 존재를 발견했다.

흉상은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상자에 담겨진 회의실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발견 당시에도 건물 잔해와 장비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재단은 프랑스 로맹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이 작품이 수십년전 사라진 희귀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작품은 필라델피아 박물관에서 열리는 로맹 사망 100주기 기념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 호놀룰루 상점 도둑들 '스캠' 집중 공략

호놀룰루의 상점 털이 절도범들이 스캠을 가장 선호하는 타깃으로 삼고 있어, 이를 훔쳐다 거리에서 팔아서 급히 현금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다.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라 롱에 따르면 과거 상점 도둑들은 주류를 주로 노렸지만 최근에는 스캠을 가장 많이 훔쳐간다고 '하와이 뉴스'가 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아무리 잘 감시를 하려고 해도, 일단 그들이 훔쳐서 달아나면 카운터를 비우고 쫓아갈 수 없어서 당하고 만다"고 그는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호놀룰루 경찰은 이 달 초에도 스캠을 박스 채로 훔쳐 달아난 사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도둑들이 스캠을 선호하는 이유는 빨리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마약 자금등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와이 북 지역구소'의 키모 카르발로 대변인은 말했다.

하와이 주민들은 연간 수백만개의 스캠을 소비하고 있어 미국 전역에서 1인당 최고의 가공육 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스캠은 패지고기 어께 살과 다리 살, 실탕 소금을 혼합해 만드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보급품으로 이곳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냉장하지 않고도 실온에서 거의 무한대로 장기 보존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

#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